

21. 지배체제와 논쟁하는 예수 (마태 21-22 장)

참조: 마가복음과 신학다시하기 18, “성서 다시읽기 (막 12:1-17)”

A. 선지자 예수 (마 21:1-11) => 21:46

- 왕이 아님 => 22:41-46

황제 (로마제국)	예수 (하느님 나라)
지배자와 군대 (& 전쟁포로)	마 21:1, 7 (전쟁 x) => 예언자 (prophetic sign action)
도시입성	마 21:8, 10
환영인파, 찬양	마 21:8-9
지방유지의 환영사	x
성전 제의 의식/희생제물	마 21:12-17 (성전의식을 뒤엎음)

- 황제는 군사와 함께 권위를 세우고, 복종을 유도. 예수는 왕이라기 보다 선지자(21:11, 46).
- 일렀으되....너의 왕은 [겸손?] 온유하여(πραῦς)=> 숙 9:9. 헬라어의 본 뜻은 "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뺨이 있지 않은 상태," 곧 자신을 잘 들여다 보아, 분수를 넘지 않는 마음가짐(갈 5:23). 하지만 여기서, 마 5:5 (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=> πραεὶς=>ἀτυχεῖ, afflicted)와 연결해서 이해.

B. 무슨 권세, 요한이야기에 대한 답.

- 예수도 황제/지배자처럼 성전으로 향함. 그러나 의도의 차이. Status quo 중 자신의 안위를 구함이 아닌, 민중들을 억압적인 체제로부터 구출. 성전(권력의 핵심)=> 분쟁의 핵 (confrontation with the leadership); ①제도에 대한 도전(21:12-13=> Challenge), ②희생자들을 감싸앓음(21:14-17=> Care).
- Create ③대안공동체, 하느님 나라=> 무슨 권위? (21:23-27) -----자기들 외 ‘권위’를 갖지 못한다는 뜻=> 이단/신성모독죄(blasphemy) 위협. 두 아들이야기 (21:28-32)=> 바리새인/종교지도자 vs. 창기, 세리. 1) 하느님 외 다른 권위가 없음을 확인—예, 로마제국; 2) 그 하느님 ‘권위’에 바리새인/지배계급이 순종치 않음. 비유를 통해 신성모독죄를 피함.
- 또 다른 비유 (21:33-45; 22:1-14)와 바리새인 => 결말은 예수를 죽이려 함(21:46; 22:15)

C. 천국비유: 비유와 바리새인

- 비유=> informative 하게 읽으면, 문제 투성이 (이중으로 초대; 전부 거절; 종들에 대한 수모와 살생; 군대를 보내 동네를 불로 진멸; 화염 속에 혼인 잔치 강행; 아무나 초대; 복장 검사; 예복입지 않은 자에 대한 저주, ...)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바리새인들은 그 뜻을 간파=>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... (22:15)
 - 알레고리 해석: 왕(하느님); 아들(예수=> ‘하느님의 아들’ not Emperor); 종들(선지자); 처음 초대받은 자(종교지도자); 혼인예식(새로운 언약, 새로운 세상, the eschatological age).
 - 전쟁=> 70년 예루살렘성전 멸망 + leadership change (역사를 성서의 눈으로 해석)
 - Q. “예복입지 않은 자”는?
 - “악한 자나 선한 자” (both wicked and good, ποιηρούς τε καὶ ἀγαθούς) => 가라지와 알곡 비유 (마 13:24-30).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한 명뿐일까?
 - 예복의 의미는? “The absence of the wedding garment suggests a failure to discern and honor the authority and goodness of the king” (Warren Carter, *Matthew and the Margin*, 437).
 - 교훈. 초대에 걸맞는 행동=> 신앙을 실천하는 생활, 정체성과 생활이 일관성 (=> 열매가 없음, 달란트를 숨긴 종)

생각해 보기

1. 마 22:3 에서 그들(지배이데올로기에 물든 자들)은 초대에 응하기를 꺼려했다(did not wish to come). 왜 그럴까?
2. 나를 향한 하느님의 부름(call << καλέω 22장에만 7번)은 무엇이라 생각하나?